

1 축하

서명수 총장

2 화성학포럼 소개

사회자 - 이종문교수

3 행사 일정

사회자 - 이종문교수

4 발표 주제 - 홍성민 박사

화성특례시 지역별 교통 특성

5 발표 주제 - 권오균 박사

화성특례시 저출생 대응 방향

6 논평 1

공병훈 교수

7 논평 2

정혜선 교수

8 전체토론

2026

화성학연구소 창립 기념

화성학 포럼



협성대학교
HYUPSUNG UNIVERSITY



홋카이도대학 토목공학박사

홍성민

발표주제 : 화성특례시 지역별 교통 특성

주요경력

- 일본 홋카이도대학 토목공학박사(교통공학 전공)
- (現) 화성시연구원 기획경영실 연구기획부장(`26.2~)
- (現)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23.6~`26.1.)
- (前)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17.2~`23.6)
- (現) 국토교통부 제12기 국가교통위원회
- (現) 화성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 (前)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위원회
- (前) 행정안전부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등

배경 및 목적

- 화성특례시는 2001년 시 승격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공간 확산을 거쳐 2025년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대규모 도시로 성장함. 그러나, 화성시는 다핵도시로써 동탄·병점 등 도시지역과 광범위한 비도시지역의 공존으로 지역별 교통 여건 및 통행 특성 격차가 크며, 2026년 4개 일반구 설치를 앞둔 시점에서 기존 2권역 중심의 단순 진단으로는 구조적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도시·비도시 구분과 통행 특성을 결합한 데이터 분석, 시민 체감, 전문가 판단을 종합 적용하여 교통 문제를 진단하고 우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정책제언

- 화성시 교통정책은 획일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통행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 단기적으로는 생활권 내 보행 환경 정비와 안전 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신속히 개선하고, 중기적으로는 권역 내·간 이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통 네트워크와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완하며, 장기적으로는 광역 교통체계 연계 강화를 통해 이동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 결과는 2026년 일반구 설치 이후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수립과 자원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권오균

발표주제 : 화성특례시 저출생 대응 특화

주요경력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 (現) 화성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23.6~)
- (前)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11.3~`23.6)
- (現) 화성시 중장년지원위원회
- (現) 화성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 (前)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 (前) 경기주택도시공사 사회공헌위원회 등

배경 및 목적

- 화성시 합계출산율은 2020년 1.09명에서 2023년 0.98명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OECD 평균(1.40명), 우리나라(0.72명), 경기도(0.77명)와 유사한 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음. 본 연구는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저출생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총 23개의 신규 정책을 제안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친화 교육 선도학교, 공공예식장, 난임부부 상담센터, 임신부 안전 이동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화성형 아동수당, 아빠 놀이터, 어린이 패스트트랙, 송영 보육 스테이션, 육아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됨. 아울러 세대 공존형 주거단지, 키즈 오케이 존, 3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면제, 화성형 가족친화 기업 인증, 육아지원근무제,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일자리 편의점, 신혼·다자녀 주거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이자 지원 사업 등을 제안함. 기존의 현금성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비현금성·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방향임.